



기업의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WWF-Korea의 5가지 제언

배경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경제 체제에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탈탄소화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 주요 산업별 각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사업 존속과 경영전략, 경쟁력을 망라하는 경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WWF는 보고서를 통해 10개 산업 부문을 분석하고, 해외 우수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기업이 기후행동을 강화해 나가는 데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브리프는 그중 주요 시사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규제에 부합하는 수준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류 모두의 문제이자 기업의 생존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걸린 경영전략의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도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장기비전 및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기후행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기업을 위한 5가지 제언

1. 장기비전을 세우고 정책제언 활동을 주도하세요.

‘장기비전’은 기업의 사업 영역 자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최신 기후과학에 근거한 목표 설정, 그에 따른 목표 달성 시뮬레이션 및 이행방안 개발 연구, 충분한 이해관계자 협의 및 설득 등이 필요합니다.

2. SBTi에 가입하여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를 세우세요.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과학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지침과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기후행동을 강화하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3. 에너지 효율목표를 설정하세요.

에너지 효율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 중 하나로서 절대량 기준, 집약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생산방식에서의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생산방식의 혁신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세요.

재생에너지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 중 하나로서 생산과정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직접 생산을 통한 목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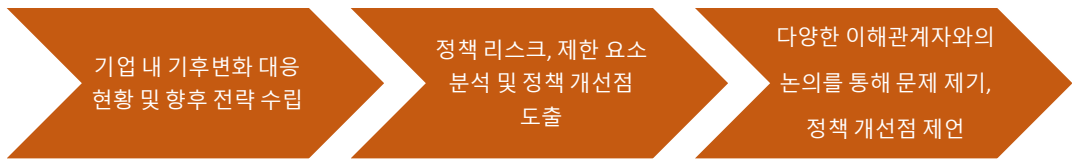
5. 협력사 관리를 통해 Scope 3 배출량을 줄여보세요.

한국에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시 Scope 1·2에 해당되는 배출원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지만 Scope 3는 자발적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Scope 3까지 전범위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장기비전을 세우고 정책제언 활동을 주도하세요.

정책제언 활동은 기업의 '장기비전' 수립 중 정책적 제한(국가 전력 구조 등)으로 인해 장기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합니다. '장기비전'의 예) IKEA climate positive by 2030, Microsoft carbon negative in 2030, Unilever carbon neutral by 2039

ACTIONS



CASE

'장기비전' 설정을 넘어서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제언 활동' 사례로 H&M의 EU 'Clean Energy For All Europeans' 목표 변경과 Google의 대만 전력법 개정 촉구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Google의 대만 전력법 개정 촉구는 한국과 유사한 전력 구조였던 대만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2. SBTi에 가입하여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를 세우세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채택한 목표가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충족할 경우 과학기반목표(Science Based Target, SBT)로 인정합니다. SBT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결국 반드시 필요하며, SBT를 선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이행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ACTIONS



CASE

필수소비재 업종인 Kellogg's는 목표 설정을 위해 WWF, CDP와 같은 NGO 기관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SBT 설정은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는 방법입니다.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분명 있지만, 목표 달성을 통해 얻는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도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얻는 에너지 사용 비용 감소를 고려했을 때, 목표 설정을 Win-Win 전략으로 봅니다.

3. 에너지 효율목표를 설정하세요.

이미 고도화된 공정, 설비를 도입함에 따라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목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에너지효율화 개념을 넘어 다양한 시각에서의 에너지효율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A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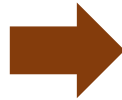


4.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세요.

새로운 조달 방법을 모색하고 시도하세요. 또한 필요에 따라 정책제언 활동을 병행하세요.

CASE

Apple은 자사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Apple은 타 기업의 재생에너지 대한 관심도가 낮은 시기부터 차근차근 재생에너지 확보 방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조달 방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보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정책제언 활동(Policy Advocacy)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ACTIONS

- 우선 기업 현황 분석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량 및 재생에너지 확보 필요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 재생에너지 확보가 용이한 또는 우선 공급이 필요한 사업장 등을 파악하고, 이후 각 사업장 별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을 확보해야 합니다.
- CoREi와 같은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5. 협력사 관리를 통해 Scope 3 배출량을 줄여보세요.

온실가스 공개 범위(Scope1·2·3) 중 Scope 3는 카테고리가 다양하고, 이해관계자의 복잡성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CTIONS

1단계	기업 현황 분석
2단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분석
3단계	감축 사업 적용 가능 여부 이해관계자의 협력 가능 여부 고려
4단계	Scope 3 최종 목표 설정

CASE

Walmart는 자사 탄소배출량의 90%가 Scope 3에서 기인함을 파악하고 협력사와 함께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캠페인-Project Gigaton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Scope 3의 배출량을 1 Gigaton 줄이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한국 기업의 노력에 대한 평가' 보고서 전문을 참고하십시오

wwfkr.awsassets.panda.org/downloads/_____2020.pdf

보고서 소개

WWF-Korea는 2018년 전기·전자·통신과 수송·물류·자동차·조선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한국 기업의 노력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서 나아가 업종을 확대해 총 10개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해외 선진기업들과 비교분석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내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평가결과 요약

국내는 평균 59점, 해외는 평균 80점의 평가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점수 차이의 원인은 국내외 기업 선정 기준(해외의 경우 우수 기업 선정), 배출감축목표 단위, 재생에너지 목표 유무, 목표설정의 신뢰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내외 업종 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외 상위 5개 기업(전기·전자, 통신, 유틸리티, 금융, 수송)이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업종 특성에 따른 기후변화 노력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 기업은 특히 '장기비전', '에너지효율목표', '재생에너지목표' 부분에서 해외 기업과 비교하여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해외 기업의 에너지 전략 수립 및 실행 사례

해외 글로벌 기업들 중 선도적인 기후변화 행동을 보인 사례를 소개했다. 7가지 핵심지표를 기준으로 해외 기업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을 위한 5가지를 제언하는 바입니다.

이 보고서는 씨티재단과 한국씨티은행의 기후행동 파트너십 '내일을 위한 변화 (Change Now for Tomorrow)' 프로그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